

<要 約>

I. 金融產業 改編의 背景

- 금융 산업의 개편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국내 금융 기관의 競爭力を 제고함으로써 외국의 금융 기관과의 경쟁 기반을 확립하고 국내 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음
 - 금융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복합화되고 세계적으로 은행, 증권 등의 兼業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 기관들도 이에 부응해야 함
 - 금융 전산화 등 금융 서비스 하드웨어의 혁신은 대규모의 고정 투자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병과 같은 금융 기관의 大型化가 필요함

II. 改編案의 特徵과 影響

- (特徵) 금융 산업의 개편을 위한 법안들은 금융 兼業化的 추세에 발맞추어 금융 산업간 업무 영역에 대한 規制를 緩和하고, 동시에 경쟁의 격화에 따라 피해를 입기 쉬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保險 및 監督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證券產業 개편안과 綜金社法 개정안은 각각 증권사와 투신사, 종금사와 투금사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여 상호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預金者保護法 제정안과 信用管理基金法 개정안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파산시 보험금 지급, 청산 등 사후 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및 감독 기능의 강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은행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租稅減免法 개정안은 합병시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外國換管理法 개정안은 경상 및 자본 거래에 있어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외화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 先物去來法 제정안은 派生商品의 場内外 거래를 위한 선물거래소 설립 외에 감독을 위한 선물거래위원회의 설치 등 검사 및 감독 기능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影響) 금융 산업의 개편에 의한 업무 영역의 확대에 따라 금융 기관 사이에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금융 서비스가 다양화되어 금융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 반면에 금융 기관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파산 위험성이 증가하여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음

<要 約>

III. 改編案의 評價와 課題

- (評價) 금융 기관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의 제거가 기대에 못 미치는 소극적인 개혁이며 과당 경쟁에 대한 방지책과 투자자 보호책 등이 미흡하고 감독 체계의 다원화로 인해 감독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점이 간과되고 있음
 - 증권 산업 개편안 및 종금사법 개정안 등을 좁은 범위내에서의 業務 障壁을 제거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업무 영역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야기할 금융 시장의 不安定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이 미흡함
 - 감독 체계의 강화에 있어 감독 기관의 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감독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음
- (課題) 선진국의 추세처럼 은행, 증권, 보험간의 업무 영역 구분을 제거하여 진정한 金融兼業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投資者 保護 장치를 확대하고 一貫된 監督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은행,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과감한 업무 영역의 統合化와 실질적인 進入 장벽의 제거를 통해 경쟁 여건을 확립해야 함
 - 과당 경쟁으로 인해 증권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 등이 유발될 수 있음. 이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公示制度 등 投資者 保護策이 강구되어야 함

IV. 企業에 주는 示唆點

- (示唆點) 금융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기업 자금 조달의 비용이 인하될 것임. 반면, 금융 기관의 파산 위험성 증가와 주가, 금리 및 환율 변동폭의 확대가 예상됨
- (課題) 기업은 派生金融商品에 의한 해정, 綜合的 資產-負債管理 (ALM) 및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의 확대 등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I. 金融產業 改編의 背景

금융 산업 개편
은 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
한 것

복합화된 금융
서비스 욕구의
충족 및 전산화
를 위한 대규모
투자 수요도 개
편을 요구함

- (焦點) 정부는 본격적인 금융 시장의 개방에 앞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금융 산업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행정 조치의 제정 및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이중에는 證券投資信託業法 改正案, 綜合金融會社에 관한法律 改正案, 預金者保護法 制定案, 銀行 合併 촉진을 위한 租稅減免法 改正案, 先物去來法 制定案, 信用管理基金法 改正案, 外國換管理法 改正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背景) 금융 산업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첫째, 국내 금융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의 대형 금융 기관과의 경쟁 기반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 금융 기관간의 경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의 인하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음
 - 둘째,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복합화를 반영하여 80년대부터 은행과 증권의 兼業化 추세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 기관들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외국 금융 기관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
 - 영국은 80년대초 은행과 증권사의 겸업을 허용하는 「빅뱅 (Big Bang)」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고 현재 미국 의회에는 은행과 증권의 겸업을 허용하는 「금융 서비스 경쟁 촉진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일본도 은행과 증권의 겸업 허용을 고려하고 있음
 - 셋째, 금융 전산화 등 금융 서비스 하드웨어의 혁신은 대규모의 고정 투자를 요구하며 거액의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합併 등에 의한 금융 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것을 감안한 금융 산업 개편이 요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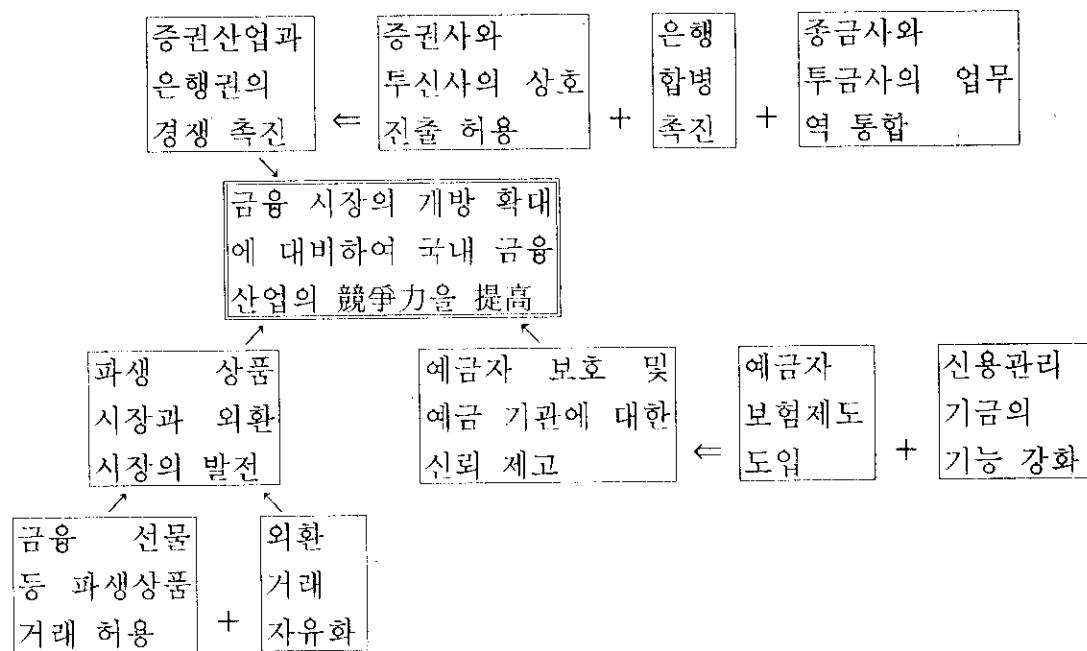
II. 改編案의 特徵과 影響

업무 영역 규제
완화, 감독 기능
강화가 주요한
특징임

- (特徵) 금융 산업의 개편을 위한 법안들은 금융 兼業化의 추세에 발맞추어 금융 산업간 업무 영역에 대한 진입 장벽의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의 격화에 따라 피해를 입기 쉬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證券產業 개편안과 綜金社法 개정안은 금융 기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각 증권사와 투신사, 종금사와 투금사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여 상호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預金者保護法 제정안과 信用管理基金法 개정안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파산시 보험금 지급, 청산 등 사후 처리 기능 뿐만 아니라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및 감독 기능 강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 銀行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租稅減免法 개정안은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합병시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外國換管理法 개정안은 경상 및 자본 거래에 있어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화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 先物去來法 제정안은 派生商品의 場內外 거래를 위한 선물거래소 설립 외에 감독을 위한 선물거래위원회 설치 등 검사 및 감독 기능의 정비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음
- (影響) 금융 산업 개편에 의한 업무 영역의 확대에 따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에 금융 기관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파산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임
 - 금융 기관의 업무 영역 확대는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 서비스의 다양화를 초래할 것임

- 합병에 따른 금융 기관의 대형화는 금융 전산화 등에 대한 설비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첨단 금융 서비스 제공을 확대시킬 것임
- 반면, 금융 기관간의 경쟁 격화는 수익성 감소를 초래하여 금융 기관의 파산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음

<金融產業 改編의 推進 方向>



(1) 證券產業 改編案

- (內容) 證券社와 投信社의 상호 진출 및 投資諮詢社의 투신사 전환이 허용되지만 10대 그룹 계열의 증권사는 공동 출자를 통해서만 투신업에의 진출이 가능함
- (施行 日程) 을 10월의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96년초로 예상되는 법 公布日부터 시행될 예정임
- (影響) 證市의 기관 투자가 비율이 증가하고 금융 기관간에 수익률 경쟁이 격화되며 증권 관련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임
- (證市 機關化) 증권 투자 업무를 영위하는 투신사의 증가

증시의 기관 투
자가 비율이 증
가하고 수익률
경쟁이 격화될
것임

로 인해,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80%를 능가하는 미국·일본·영국 등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증권 시장의 기관화가 더욱 촉진될 것임

- (收益率 競爭) 투신사들이 모두 수익률 공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투신사간의 수익률 경쟁이 격화되고 이와 경쟁하기 위해 증권사들도 영업 전략을 기존의 약정 중심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전환할 것임
- (業務 擴大) 은행, 보험사의 합작 증권사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므로 증권사와 여타 금융 기관간의 업무 제휴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한 접포에서 은행·보험·증권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므로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짐
- (新商品 開發) 투신사의 수익률을 공시제로 인해 투신 및 증권사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모델 개발, 신상품 개발 및 운용 능력의 제고에 노력하게 될 것임
- (株價) 신설 투신사의 주식형 펀드에 편입된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투신 시장이 개방되는 97년부터 국내외 투신사간의 수익률 경쟁 심화도 주가 상승에 일조할 것임
- (金融 市場 全般) 한정된 금융 시장의 유동 자금을 대상으로 증권, 투신, 은행, 종금사가 무차별적인 수익률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금리, 주가 등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総金社法 改正案

- (內容) 投金社와 総金社의 업무 영역을 통합, 투금사의 종금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되 각사의 특성과 비교 우위에 따라 단기 금융, 외국환 업무, 리스, 증권 투자 선택 등의 업무중 하나를 특화하도록 유도함
- (施行 日程) 을 10월의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影響) 종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자연스럽게 업무

종금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어 업무 특화가 진전될 것임

- 특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고 투금사에서 전환한 종금사의 리스 업무 취급에 따라 리스 시장에서도 기존 리스사와 종금사의 경쟁이 격화될 것임
- 현재 15 개 종금사 외에 在京 8 개 투금사와 2 개 지방 투금사가 종금사로 전환되어 총 25 개의 종금사가 경쟁하게 될 전망임
- 향후 종금 시장은 선별 종금사가 주축이 될 국제 금융 및 리스 부문, 지방 종금사와 일부 투금사 출신이 주력 할 단기 금융 업무, 대형 투금사 출신이 주도할 단기 금융, 국제 금융, 리스 부문을 결충한 종합 금융 업무의 3 부문으로 전문 특화될 것으로 예상됨

은행과 비은행권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 금융 서비스 제공이 증가할 것임

(3) 銀行合併 促進을 위한 租稅減免法 改正案

- (內容) 정부는 금융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 지원책을 통해 은행간 합병을 촉진함으로써 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임
 - 세경원은 은행들이 합병할 경우 清算所得과 利子配當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해 주도록 조세감면 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임
- (施行 日程) 올 10월의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影響) 합병에 의한 은행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금융 기관간에 대출·수신 등의 업무에 있어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자 맹킹 등 첨단 금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 산업의 개편에 의해 내년부터 투신·종금사 등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므로, 은행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로 제 2 금융권과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동기가 강화될 것임

(4) 預金者保護法 制定案

- (內容) 96년 7월 預金保險公社를 설립하여 97년부터

**은행의 고수익·
고위험 추구에
따라 파산이 증
가할 우려도 있
음**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不實 은행 합併 韓旋, 引受 은행 자금 지원, 은행 경영 상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施行 日程) 을 10월의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影響) 예금자 보호법의 도입은 은행 파산시 예금자의 보호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안전판 마련으로 인한 은행의 고위험·고수익 추구에 따라 파산 위험성이 증가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음
 - (銀行圈) 파산시 예금을 대신 지급해 줄 보험공사의 설립으로 안전판을 갖게 되는 은행은 고위험·고수익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파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預金者) 거액 예금자는 은행별 2천만 원이라는 보험 한도액을 피하기 위해 예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은행의 금융 중개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5) 先物去來法 制定案

**파생금융상품 시
장의 발전이 촉
진되고 국내 금
융 기관의 경쟁
력이 제고될 것**

- (內容) 先物去來法은 일반 상품 및 금융 상품의 派生商品에 대한 場內外去來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統合先物去來法으로서 先物去來所의 설립, 先物去來業과 先物投資基金業의 구분, 감독을 위한 先物去來委員會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施行 日程) 을 10월의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影響) 선물 거래를 종합 규율하는 기본법의 제정으로 선물을 포함한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의 발전이 촉진되고 외국 금융 기관에 대한 국내 금융 기관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임
 - 국내 금융 기관들은 국내 선물 시장의 발전에 따라 파생 금융 상품 거래에 있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 시장 개방에 의해 진입한 외국 금융

기관들에 대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국내 금융 기관들이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적을 소홀히 할 경우, 외국의 대형 금융 기관에 의한 국내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의 先占도 우려됨

(6) 信用管理基金法 改正案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나 출연율
인상은 경영 압
박을 초래할 것

- (內容) 예금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補
填金 지금 재원을 확보하고, 信用管理基金에 相互信用
金庫의 검사권을 부여하여 不實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건전 경영을 도모함
- (施行 日程) 올 10월의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
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影響) 신용관리기금의 검사 및 감독 기능 강화에 의
해 상호신용금고의 사고율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저축
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임
 - 신용관리기금의 감독 기능 강화로 인한 사고율 감소는
예금자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상호신용금고 등 저축기관
의 발전을 가져올 것임
 - 반면, 기금에 대한 出捐率 증가는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및 투금사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7) 外國換管理法 改正案

- (內容) 기본적으로 종래의 규제 위주에서 원칙적인 자
유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
화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의 정비
에 중점을 두고 있음
- (施行 日程) 올 10월의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
면 9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影響) 외국환 은행, 환전상 등에 의한 외환 거래를 인
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외환 시장의 발
전이 촉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화 유출입의 증가

**국내 외환 시장
의 발전이 촉진
되고 환율 변동
폭이 확대될 것
이 예상됨**

- 에 따른 환율 변동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외환 거래가 인가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환 은행과 환전상들은 외환 거래 규모를 대폭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업의 경상 및 자본 거래에 있어 점증하는 외환 거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임
- 반면, 외화 유출입의 빈도 및 규모 확대에 따라 환율 급변 등 국내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도 있음

III. 改編案의 評價와 課題

**업무 영역 규제
제거에 소극적이
며 감독 기관의
중복이 문제점**

- (評價) 금융 기관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의 제거에는 소극적이며 과당 경쟁에 대한 방지책과 투자자 보호책 등이 미흡하며 감독 체계의 다원화로 인해 감독의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음
- 증권 산업 개편안 및 종금사법 개정안 등을 좁은 범위내에서의 업무 장벽을 제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업무 영역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진입의 자유화로 인해 업체의 난립과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이 미흡함
- 감독 체계의 강화에 있어 감독 기관의 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감독 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독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課題) 선진국의 추세처럼 은행, 증권, 보험간의 업무 영역 구분을 제거하여 진정한 금융 경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일관된

**은행, 증권, 보험
간 업무 영역의
전체적인 규제
완화가 과제임**

감독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정부는 금융 산업 개편이 부문간의 영역 싸움이 되지 않도록 은행,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과감한 업무 영역의 통합화와 진입 장벽의 제거를 통해 경쟁 여건을 확립해야 함
- 금융 산업간의 칸막이 제거는 금융 기관간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당 경쟁을 초래하여 내부자 거래·주가 조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公示制度 등 투자자 보호책을 강화해야 함
- 自己資本 및 流動性 比率, 新金融商品, 帳簿外 去來인 화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는 금융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며 업무 영역, 내부 경영, 금리·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완화되어야 함

(1) 證券產業 改編案

**증권 산업내의
완전한 업무 영
역 통합과 진입
자유화가 미흡**

- (評價) 대그룹에 의한 증권·투신 산업의 지배 방지와 同산업내의 과당 경쟁 방지 등이 강조되어 완전한 업무 영역의 통합과 진입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肯定的側面) 투신사의 난립과 대그룹에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증권·투신 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하며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편 내용을 가지고 있음
 - 투신사의 복수 소유 배제, 최소 자본금 규모 등 진입 장벽을 설치하여 투신사의 난립을 방지하려고 하였음
 - 증권 및 투신 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증권사를 종합투자은행으로, 투신사를 종합자산운용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임
- (問題點) 투신사보다 증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개혁이어서 투신사의 수익 구조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책이 미흡함
 - 투신사의 증권 자회사 설립이 불허되었고 판매와 운용 조직의 분리가 관란하여 투신사의 업무 영역 확장에는 도움이 적음

투신사의 판매 및 운용 조직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이 필요함

- (課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및 투신사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신설 투신사의 운용 및 판매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투신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함
 - (監督 強化) 세계적인 금융 자유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증권 산업의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 (內部 監査 強化) 수익률 경쟁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대형 증권사와 같이 내부 관계자들의 윤리 규정을 엄격히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자체 감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함
 - (投信社 組織) 투신사의 운용과 판매 조직의 분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금융 시장의 추세에 역행하고 금융 시장의 효율을 저하시키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持株 會社 制度) 97년 投信市場 개방에 따라 진입할 대형 외국 투신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持株會社 (holding company)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投資者 保護) 투신사들의 난립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信託財產 운용의 무실화가 우려되므로 공시 제도와 내부자 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책을 강화해야 함

(2) 綜金社法 改正案

- (評價) 금융 시장의 개방에 대비, 종전 칸막이식 영업을 하던 두 업계의 영업 장벽을 체거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투금사의 은행, 증권업 진출 불허 등은 세계적인 금융 겸업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개혁임
 - (肯定的 側面) 투금과 종금의 업무 영역을 통합해 향후 선진국의 投資銀行과 같은 종합 금융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 및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를 반영했음

종금사의 투신업 진출과 투금사가 은행이나 증권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問題點) 투금사의 은행, 증권업 진출 및 종금사의 투신업 진출 불허는 금융 겸업화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
- (課題) 종금사의 투신업 진출과 투금사의 은행·증권사로의 전환 등을 허용하여 제2금융권에 대해 전체적인 겸업을 허용해야 함
 - 종금사나 투금사가 매수 합병(M&A)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도 추가되어야 함
 -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으로 인해 리스 시장내의 경쟁이 증대될 것이므로 형평의 차원에서 소비자 리스 허용 및 출자 제한 완화 등을 중심으로 리스 업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함

(3) 銀行合併 促進을 위한 租稅減免法 改正案

은행 합병은 업무 영역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 (評價)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비용을 절감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 인사 관리상의 애로 등의 문제점도 갖고 있음
 - (長點) 감원에 의한 고정 비용의 절감,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감소, 자금력을 기초로 한 대규모 투자 가능, 기존 은행이 갖고 있던 고객, 점포 및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問題點) 합병할 경우,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해고 등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며 서로 다른 은행 조직간의 화합이 쉽지 않은 등 인사상 어려운 문제가 있음
- (課題) 은행 합병은 업무 영역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은행은 취급 업무의 전문화, 부실 여신 축소, 경영 혁신 등을 통해 내부 효율성과 수익성의 증대를 추구해야 함
 - 대형 은행간의 합병 이외에도 업무 영역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도록 대형 시중 은행과 일부 후발 은행간, 대형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간, 또는 지방 은행

간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은행권의 구조는 대형 은행과 함께 중소 규모의 전문화된 은행들이 공존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므로, 소형 은행들은 고객 혹은 업종에 전문화하거나 지역 밀착형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임

(4) 預金者保護法 制定案

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분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

- (評價) 보험 한도를 전액 보장함에 따른 은행의 고수익·고위험 추구 가능성, 은행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보험료 징수, 감독 기능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全額 保障) 보험금 지급 한도의 전액(2천만 원) 보장은 예금자가 경영 상태에 관계없이 고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선호하게 하여 예금자의 은행 감시 기능이 저하되고 은행의 고수익·고위험 추구를 조장시킬 수 있음
 - (一律的 保險料) 은행의 재무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경영 상태가 우수한 은행이 부실한 은행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형평상의 문제가 있음
- (課題) 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部分保險制度를 도입하고 은행의 경영 상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해야 함. 또한, 은행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支給準備率을 인하하고 은행 경영의 자율화도 확대해야 함
 - (部分保險制度導入) 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은행의 고수익·고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중인 부분 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부분 보험 제도는 보험금 지급 한도의 일부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5천만 원 사이는 90%)만을 보상해 줌으로써 예금자가 은행의 경영 상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은행 파산을 예방하는 기능을 함

- (保險料率 差等化) 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고수익·고위험의 자산 운용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道德的 危險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재무 상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함
- (支準率 引下) 보험료의 납부로 인한 은행의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율을 인하해야 함
- (銀行 經營 自律化) 우리나라 은행들은 주주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이사회에 의한 감시 기능이 취약하므로 주주와 경영자의 의사가 은행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은행의 자율 경영을 보장해야 함

(5) 先物去來法 制定案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을 선물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評價) 先物 거래를 종합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선물 시장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이나 감독 기관이 중복되어 감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肯定的 側面) 선물 거래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선물 감독과 시장 체계, 선물업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선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할 것임
- (問題點)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감독 체계가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감독 영역이 겹칠 수 있는 복합 금융 상품의 경우 비효율적인 감독을 초래할 수 있음
- (課題) 감독 기관을 선물거래위원회로 일원화시켜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複數 거래소의 설립을 통해 거래소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함
- (監督機關의 一元化) 일원화된 감독 기관인 선물거래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 (規制 緩和) 주식·자금·외환시장 등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現物市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이와 연관된 先物市場 기능이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여야 함

- (複數 去來所 設立)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복수 거래소의 설립을 통해 거래소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시카고 商業去來所(CME)와 시카고 商品去來所(CBOT)가 선물 거래에서 경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왔음

(6) 信用管理基金法 改正案

- (評價) 信用管理基金에게 相互信用金庫에 대한 검사권을 부여하고 出捐率을 인상한 것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땅직한 조치임
 - 금융 기관간의 형평성 확보의 차원에서 신용관리기금의 補填 지급 한도를 은행과 같은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연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예금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임
- (問題點) 감독 기관의 중복에 따른 감독의 효율 저하가 가장 큰 문제점임
 - (監督體系의 多元化)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독체계의 다원화는 상호신용금고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독권은 재경원장관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업태 검사권은 한국은행 은행감독 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課題) 감독 기관을 신용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 (監督의 一元化)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의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독 체계를 신용관리기금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독 기관
을 신용관리기금
으로 단일화해야
함

(7) 外國換管理法 改正案

- (評價) 외환 거래를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 위주로 전환 혹은 단일화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에게 자유화의 여지를 확대하는 한편 당국이 외환 거래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용이하게 됨
 - 외환 거래에 대한 자유화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外國換平衡基金의 규모를 증가시켜서 정부의 대응 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임
 - (問題點) 輸出 先受金 등 자본 거래적 성격의 경상 거래와 長期 商業借款 등 자본 거래의 자유화가 미흡함
 - (經常去來) 경상 거래중 延支給, 輸出 先受金·着手金과 같이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 성격을 가진 자본 거래적 성격의 경상 거래에 대한 자유화가 미흡함
 - (資本去來) 경상 거래에 비해서 자본 거래 부문의 자유화는 매우 미흡하여 많은 조항에 규제 원칙이 잔존해 있음
 - 자본거래 중에서도 거시 경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실물 관련 거래, 즉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위한 장기 商業借款이나 해외 자금 조달 및 해외 직접 투자에 관련된 부문의 경우에도 자유화의 추진이 미흡함
 - (課題) 연지급, 수출 선수금 등 자본 거래적인 성격을 가진 경상 거래에 대한 자유화와 자본 거래중 실물과 관련된 거래인 장기 상업 차관 도입, 해외 직접 투자 등에 대한 자유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설비 투자를 위한 장기 상업 차관의 도입과 해외 직접 투자에 관련된 외환 거래의 자유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
- 장기 상업 차관
도입 등 실물 관
련 자본 거래의
자유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

IV. 企業에 주는 示唆點

**금융 산업 개편
은 금융 서비스
의 질 제고와 금
융 비용의 인하
를 초래할 것**

**주가, 금리 및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금융
기관의 파산 위
험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示唆點) 금융 산업의 개편은 금융 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인하시킬 것임. 반면, 금융 기관간의 과당 경쟁에 따른 파산 위험성 증가와 주가, 금리 및 환율 변동폭의 확대는 기업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금융 산업간의 영업 장벽 제거로 특징 지워지는 금융 산업 개편은 금융 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 시장의 효율화 및 금융 서비스의 질 제고, 금융 비용의 인하를 유발함으로써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반면, 금융 산업 개편에 의한 증권 시장의 효율화와 機關化는 주가가 여타 경제 변수에 반응하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여 주가 변동폭이 종래 정부에 의해 관리된 증시에 비해 상당히 확대될 것임
 - 증권 산업의 개편은 증권 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고 이는 기업의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음
 - 반면, 증시에서 증권·종금·투신사 등의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를 금융 기관의 파산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금융 시장 전반의 불안이 증가할 우려도 있음
 - 종금사법 개정에 따라 종금사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기업 금융, 국제 금융 등 종합 금융의 전문 분야별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임
 - 반면, 과당 경쟁에 따라 종금사의 파산이 증가할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은행 합병의 촉진에 따라 대형화된 은행들은 전자 뱅킹 등 첨단 금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할 것임
 - 반면, 은행의 수가 감소하여 은행권이 寡占市場化할 경우에는 은행간의 담합에 의해 대출 금리 등 기업의 자

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에 우려됨

- 예금자보호법 제정과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예금자의 저축을 촉진하고 이는 기업에 대한 대출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임
 - 반면, 안전판의 마련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가 고수익·고위험 전략을 추구하도록 하여 파산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선물거래법의 제정은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환율, 금리, 주가 등의 변동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해징 (위험 회피) 기법을 제공하고 이는 기업의 손실을 감소시켜 이윤을 증대시킬 것임
 - 반면, 외국의 投機資本에 의한 国內 派生金融商品市場의 교란에 의해 기업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음

외환 유출입의 증가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여 기업의 환차손을 증가시킬 가능성 이 있음

-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은 외환 거래의 자유화를 통해 기업의 무역, 투자, 해외 자금 조달 등의 활동을 촉진할 것임
 - 반면, 외환 유출입의 확대는 환율이 급변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의 환차손이 확대될 우려도 있음

<금융 산업 개편이 기업에 주는 영향>

항 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증권 산업 개편	- 증권시장 발전 (기관화, 수익률 증대, 신상품, 주가 상승) → 기업의 직접 금융 증가로 재무 상태 호전	- 파당 경쟁으로 인해 주가 등 금융 시장 전반의 불안 증가 →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종금사 법 개정	- 국제 금융, 기업 금융 등 종합 금융 서비스의 질 향상 → 기업 활동 촉진	- 파당 경쟁에 따른 종금사의 파산 증가 → 기업 자금 조달에 악영향
은행의 합병 촉진	- 전자뱅킹 등 첨단금융 서비스 제공 → 기업 활동 촉진	- 은행권의 寡占 市場化 →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가능

항 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예금자 보호법	- 은행권에 대한 신뢰 제고로 예금자의 저축 촉진 → 기업대출 증가로 비용 감소	- 은행의 고수익·고위험 추구로 인한 파산 위험성 증가 →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
선물 거래법	-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발전에 따른 위험 회피 증대 → 기업 이윤 증가	- 외국의 투기 자본에 의한 금융시장 혼란 → 기업 금융 관련 손실 증가
신용 관리 기금법	- 상호신용금고의 안전성 제고 → 기업 자금 조달 촉진	- 상호신용금고 등의 출연율 증가는 이들의 경영 압박 초래 → 기업 자금 조달 압박
외국환 관리법	- 외환 거래의 자유화 → 기업 활동 촉진	- 외환 유출입의 확대로 환율 급변 위험 증가 → 기업 손실 증가

주가, 금리 및 환율의 금변에 대해 파생 금융 상품을 사용한 해징 등 신경영 기법을 사용해 대처해야 함

O (課題) 금융 산업의 개편과 외환 거래의 자유화는 주가, 금리 및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금융 기관의 파산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대해 기업은 派生金融商品에 의한 해징, 綜合的 資產-負債管理 (ALM) 및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의 확대 등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 주가, 금리 및 환율 변동폭의 확대에 대해 기업은 주가지수 선물, 금리 스왑, 통화 선물 등 파생 금융 상품을 활용하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起債 등 해외 자금 조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파생 금융 상품, 종합적 자산-부채 관리 (채권과 채무의 만기를 동일하게 하거나 외화 표시 채권에 알맞은 외화 표시 채무를 보유하는 등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금리, 환율 및 기타 가격 변수의 변동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등 선진 경영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원의 교육, 연수 등 人的資本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全相準)

<附錄：金融產業 改編案의 主要 內容>

(1) 證券產業 改編案

내 용	
투신 산업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97.6까지): 증권 계열 자문사 (20개) 전환 허용, 계열 자문사가 없는 증권사(12개)는 투신사 신설 허용 - 2단계(98.6까지): 은행, 보험, 개인 자문사(9개) 전환
투신사 신규 설립 (투자 신탁 운용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출자 (50~100%): 23개 증권사 가능
투신사 소유 구조 (최소 자본금 3백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출자 (1大株主: 10~30%): 10대 그룹 계열 9개 증권사, 반드시 2개 이상 증권사 출자 (10% 이상 대주주 4인 이상)
신설 투신사 업무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후 1년간 주식형 수익 증권만 허용 (채권형은 1년 후 허용), 투자 자문업 허용 - 모집식 수익 증권만 허용 (수익 증권 판매 잔액은 자기 자본의 50배로 제한) - 3일 환매제도 적용, 증권사 위탁 판매만 가능 - 고유 계정 불허, 수탁 기관에 재산 예탁 의무화
기존 투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자문업 허용 - 운용, 판매 조직 현행 유지 허용 (자율 선택). 분리시 본체는 증권사 전환, 투신 운용 자회사 1개 설립 허용 - 현행 소유 구조 인정, 대주주 등장시 10~30%로 제한 - 모집식과 매출식 혼용, 주식형부터 3일 환매 제도로 개편 - 자체 판매망과 증권사 위탁 판매 허용
증권 산업 개편	내 용
합작 증권사 설립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出資者的 은행, 보험사 참여 허용 (30대 그룹 불허)
기존 투신사 종권업 진출 (판매 조직 분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요건: 1천억 원 이상 - 업무 범위: 전국 대상(5개 지방 투신도 가능) - 설립 시기: 96년 7월부터 1년 이내 - 전업 투신사(일체형)는 경영 정상화 후 허용 재검토
종금사 투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채형 투신 업무 계속 허용

투신 감독 체계		내 용
투신 검사 감독		- 재경원에서 증권감독원으로 이관 (인허가 등 사전 규제 제외)
권 이관		
투신업협회 설립		- 96년 상반기중 설립
		- 자율 규제 기능 수행
투신 자산 운용		- 계열 증권사 인수·보유 증권 취득, 매매 불허
제한		- 계열사 증권 투자 한도는 신탁 자산의 5% 미만 (단독 출자 2%)
		- 계열 기업군 발행 주식 투자 한도는 신탁 자산의 10% 미만 (단독 출자 5%)
		- 계열 증권사에 대한 매매 주문은 총매매 주문의 20%로 제한 (단독 출자 10%)
신탁 재산 주식		- 투자자 이익에 반할 때는 주탁 회사 (증권예탁원 등)에 의결권 행사
의결권 제한		거부권 부여

(2) 綜金社法 改正案

조 항	내 용	비 고
업무	- 별도 인가 필요 업무: 시설 대여업, 증권 투신업, 금전 신탁 이외의 신탁업, 증권 업무 일부, 외국환 업무	외국환 업무 추가
영업의 인가	- 납입 자본금 3백억 원 이상 - 업무 특화 유도 가능	신설
동일인 대출	- 자기 자본의 25% 이내	개정
한도	- 계열사에 대한 제한(20%) 칠헤	
채무 부담 한도	- 총 한도는 자기 자본의 20 배 이내 - 업무별 한도 제한 칠헤	회사별 특화 유도
수의 증권 발행 한도	- 자기 자본의 5 배 이내	
부동산 취득	- 업무용 부동산 자기자본 100% 이내	인하 방침
재한		
종금·투금사	- 종금사는 인가필	
경과 조치	- 단기금융사는 영업 인가 요 - 기존 지점은 인정	
자본금 정과 조치	- 자본금 기준(3백억 원) 미달 회사는 3년 이내 증자 완료	
감독 권한의 위탁	- 은행감독원에 감독 업무 위탁 가능	신설
별처 강화	- 동일인 이신 한도 위반시 징역형 추가 등 - 별금액 상향 조정 (5백만~1천만 원)	개정

조 항	내 용	비 고
타법률 관계	- 종금채를 특수채로 분류	개정
콜거래 증개	- 콜 거래 증개 회사 설립	신설
콜거래 경과	- 콜 증개업무 승인자(단기 금융회사)는 신규사 설립시까지 동업무 영위	
조치		

(3) 銀行合併 促進을 위한 租稅減免法 改正案

내 용	비 고
- 은행들이 합병할 경우 清算所得과 利子配當 所得에 대한 所得稅와 法人稅를 면제해 줌	- 정부는 지난 91년 「금융 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合轉法)」을 제정, 금융 기관의 합병에 조세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나 세법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그 동안 합병을 위한 조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음

(4) 預金者保護法 制定案

항 목	내 용
예금 보험 공사 설립 예금 보험 공사는 다음 과 같은 조 직 및 기능 을 가지고 예금 보험 기금을 운용 할 계획	- (조직)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운용위원회를 두고 공사사장, 재경원차관, 은행감독원장, 한은 부총재, 은행연합회장 등이 위원이 됨 - (기능)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부실 은행의 합병 알선, 부실 은행을 인수하는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에 대한 제한적 조사 업무 - (예금 보험 기금)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공사 안에 예금 보험 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허용
보험 대상 예금	- 은행 계정에 수신된 예금, 적금, 부금의 원금 및 이자, 元本 補填 (원본 손실시 위탁 회사가 자기의 고유 재산으로 이를 보전) 계약이 체결된 금전 신탁의 원본 (신탁의 최초 설정시 재산가액) 및 이익을 포함 - CD, 금융채 등 체권적 성격이 강한 상품과 농업자 예금은 제외
가입 대상 은행 보험료	- 시중 은행, 지방 은행, 특수 은행, 외국 은행 국내 지점 포함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개별 기관은 제외 - 보통 가입 은행이 일률적으로 보호 대상 예금 친액의 0.02%를 예금 보험 공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영 상태에 따라 은행별로 보험료율을 자동화할 계획
보험금	- 은행의 파산 선고 등 사고시 계좌 수에 관계없이 예금자 1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5) 先物去來法 制定案

항 목	내 용
선물거래 소 설립	-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의 회원제 조직으로서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이 가능
선물거래 업과 선물 투자기금 업의 구분	- 선물업은 중개·자기매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선물거래업과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투자를 대행하는 선물투자기금업으로 구분하고 양자간의 겹업은 금지 - 선물거래업 허가시 상품별로 영업 범위를 구분하여 허가
선물거래 감독	- 감독을 위한 선물거래위원회 및 그 사무처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발족을 유보함 - 그 동안 재경원 장관이 직접 감독함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의 기존 현불 감독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선물업자간의 질서유지와 자율규제를 위한 선물협회를 설치할 수 있음
경과 조치	- 주가지수 선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증권 거래법에 의해 예정대로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함

(6) 信用管理基金法 改正案

항 목	내 용
신용관리기금의 기능 보강	- 신용관리기금에 상호신용금고 특별 검사권 및 사고 금고 처리 권한을 부여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 (신용관리기금이 증권관리위원회에 감사인 지정 의뢰)
사고 처리 절차 의 명료화	- 경영지도, 경영관리, 사고 금고의 정리 등 투명성 제고
출연율 상향 조정	- 신용관리기금의 출연율은 0.1% 이내에서 0.15% 이내로 조정 (상호신용금고,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 출연) - 신용관리기금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
기 타	-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준비예탁금의 일부를 신용관리기금에 예탁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용관리기금이 사고 금고 등의 합병을 앞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外國換管理法 改正案

항 목	현 행	개 정 방 향
경상 거래	- 외국환은행 인증(허가)제 - 용역거래 원인행위 허가제	→ 신고제로 전환 → 용역거래 허가제 폐지, 자유화
자본 거래	- 원칙: 재정경제원장관 허가 - 예외: 신고 또는 허가 및 신고 면제	→ 일부 거래 원칙적 자유화. 단, 국내 금융·외환시장 교란 우려 있는 경우에는 허가 필요
외국환 은행 · 환전상 제도	- 외국환은행 · 환거래계약 체결 인가 · 국내영업소 신설 인가, 신고제 - 환전상 설치 · 인가제 · 영업소 신설 인가제	→ 사후 신고제로 전환 → 신고제로 단일화 → 신고제로 전환 → 신고제로 단일화
외국환 집중제	- 외국환의 매각, 예치, 등록 의무	→ 평상시 외국환 집중제도 정지, 유사 시에만 집중
외국환 중개 회사	(신설)	→ 외국환중개회사(broker) 설립 허용
자유화 보완 장치	- 외국환 평형기금 · 재원: 정부 출자금 등 · 운용: 은행 예탁 등 - 비상시 거래 정지, 긴급시 자본거래 허가 제 등 분산 규정	→ 재원 추가: 歲計잉여금(기금채권 발행, 원리금 상환자금 등) → 운용 추가: 기타 금융기관 예탁 균형 신설 → 유사시 안정장치 통합 정비 (외국환 은행의 특정 외국환거래 내용 국세청 통보 등)
통화의 지정 제도	- 외국환거래에 있어 지급통화와 영수통화 지정 · 지정 지급통화: 모든 외국통화 · 지정 영수통화: IMF 8조 이행국 (85개국) 통화, 홍콩달러, ECU, 중국元 (총 88개국 통화)	→ 통화의 지정제도 폐지, 거래통화 선택 자유화
외국환 심의 위원회	- 관련 부서 공무원 중심으로 외국환심의위원회 구성	→ 외국환심의위원회 폐지로 행정절차 간소화